신한 톡톡 196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9
02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제 4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성공적 개최
ISSUE 2 - 신한대학교 제 2대 총학생회 미리보기
ISSUE 3 - 신한대학교의 얼굴들을 만나다

·신한대만의 색깔-2018 신한류 갈라쇼
·신한대학술제를 통한 학문의 교류
·공연예술학과 졸업공연
·'신한인'을 만나다- 평창군수 인터뷰

디자인학부 김서룡 교수 패션쇼 성황리에 종료
Culture 서평
신한대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톡톡'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서갑원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9. 2. 15 • **편집주간** 아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박현규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이념과 비전
04_ 편집장 논설
06_ 2018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10_2018 신한류 갈라쇼
14_신한대학교 학술제
16_디자인학부 김서룡 교수 패션쇼
18_신한대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22_중국 단기연수 프로그램
24_신한대학교 제 2기 총학생회 미리보기
26_신한대학교의 희망, 학생들
30_평창군수 인터뷰
34_공연예술학과 졸업공연
38_〈전시 〉반 고흐 특별전 (러빙빈센트)
40_〈영화〉 영주
42_〈공연〉 젠틀맨스 가이드
44_〈도서〉 언어의 온도
46_21C Superversity
48_신한대학교 이모저모
54_대학발전기금
56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2019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

대학이념

창학이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격을 완성하고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사명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으로
새로운 시대 발전에 공헌한다.

교육목적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선도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 섬김을 위한 영성교육
· 인류를 위한 시민교육
· 국가를 위한 실용교육
· 자아를 위한 전문교육

교훈

· 사랑과 봉사
· 소통과 공감
· 지성과 창의
· 도전과 발전

인재상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Shinhan 國人)'양성
· 사명인
· 세계인
· 실용인
· 학습인

대학비전

Vision Statement

교육품질로 도약하는 취업명문
New-versity, 신한대학교

Vision Slogan

START for New-Quality

Strategy Goal

더 나은 대학
더 나은 인재
더 나은 교육

Strategy

START Q 전략

S T A R T Q

S 신한국인(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T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A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R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T 재능(Talent)을 함양시키는 New-versity
Q 품질개선(Quality)활동을 통해 도약하는 New-versity

편집장 논설

학교의 주인

흔히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들 합니다. 학교의 구성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주인답게 행동할 책임도, 주인만의 권리도 있는 법이지요. 대표적으로 자신이 사는 집을 관리하는 책임 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관리하지 않는 집은 폐허가 되고 말지요. 그러한 가치들의 총합을, 흔히들'주인 의식'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2기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출범을 맞이하여, 이번 「신한 톡톡」 196호는 학교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단순한 경연을 뛰어넘어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장이었던 스트릿댄스 페스티벌과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들을 선보이는 자리인 신한류 갈라쇼, 새로이 학생들을 대표하게 될 2기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출범, 그리고 야심차게 준비한 각 학과의 이슈학생에 대한 기사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흥미롭게 읽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2월

편집장 박 현 규

제 4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몸으로 마음을 전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개중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마 몸짓 언어일 것이다. 다소 거친 표현법으로 여겨지기는 하지만, 말이 노래가 되고 글이 문학이 되듯이 갈고 닦아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춤이 될 것이다.

박현규 기자

신한대학교를 대표하는 행사 중 하나인 신한류 스트릿댄스 페스티벌이 지난 10월 27일 신한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원형극장에서 학생지원처장과 콘테스트 기획자인 공연예술학과 문병순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로 제 4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장장 10시간여에 걸친 진행 끝에 오후 7시에 종료되었으며, 총 참가팀은 솔로/팀을 합쳐 100팀에 달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신한류 뮤직페스티벌,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를 창설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있는 신한대학교가 K-POP에 이어 스트릿댄스에도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서울예대 이우재 교수(댄서 닉네임 FIRE), 댄서 남현준(댄서 닉네임 팝핀현준), 댄서 주세웅(댄서 닉네임 Boogtom), 댄서 정하늬(댄서 닉네임 Honey-j)가 위촉되었으며, 초대가수로 한국 힙합신을 대표하는 랩퍼 중 한명인 '팔로알토'가 특별 무대를 가졌다. 특히 팝핀현준 심사위원은 지난 콘테스트에서 도전자로 참가, 우승 상금 전액을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기부함으로서 대회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스트릿 댄스 경연 대회이지만 '콘테스트'가 아닌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경연이 아니라 서로의 춤을 선보이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심사위원들이 경연 참가자들에게 주문한 사안에서도 드러났다. 상세한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마다 달랐지만, 심사위원들이 참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문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었다

제 4회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성공적 개최

이는 춤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종의 몸짓언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우재 심사위원은 이에 덧붙여 "열정은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던 댄서들에게 댄스의 기회를 준 신한대학교 서갑원 총장님 그리고 콘테스트 기획자인 문병순 교수님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고, 이에 대해 문병순 교수는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답했다.

스트릿 댄스란 전통무용이나 발레, 현대무용 등의 기성 무용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대중문화 기반의 춤을 일컫는 용어로 팝핀, 비보잉, 프리스타일 등의 춤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정의에 걸맞게, 참가 팀들이 선보이는 댄스들 역시 하나 하나가 독특하고 흥미로워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팝핀이나 락킹 같은 고전적인 장르를 선보이는 팀들도 있었지만, 이전에 본 적 없던 새로운 형태의 춤을 선보이는 팀들도 있었던 것이다. 예컨대 락킹팀 글로리라이츠는 한국의 한을 재해석한 댄스를 선보였고, 카마니는 동양적인 감성에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더하여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쳐냈다. 일반부 대상을 받아 그 실력을 인정받은 '독특 크루'는 '농구'를 소재로 한 댄스를 선보여 탄성을 자아냈다.

작년 제3회 대회와 비교하여 이번 제4회 페스티벌에서는 초·중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예컨대 최연소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박홍표군은 11살의 나이에도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펼쳐 주목을 받았다. 5살부터 스트릿댄스를 시작했다는 그는 차세대 댄스신을 끌어나갈 인재로서 관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전반적으로 여성 댄서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 역시 눈여겨볼만 한 점이었다. 스트릿 댄스가 연령과 성별을 넘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편 '신한류'의 이름에 걸맞는 해외 예선 통과자들도 있었다. 특히 몽골에서 온 상딱(SANDAG-OCHIR) 참가자는 '마리오네트 인형'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기괴하면서도 역동적인 면이 돋보이는 독창적 무대를 꾸며내어 큰 주목을 받았다. 외국 참가자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온 만큼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대회에 신선함을 더했다. 다음 대회에는 좀 더 다양한 외국인 댄서들이 참가하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경연이 마무리 된 후, 심사가 종합되는 중에는 랩퍼 '팔로알토'가 특별초대공연을 가졌다. 인기 TV프로그램 'Show me the Money'에 출연하는 등 최근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는 '거북선' 등 자신의 대표곡을 다수 열창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었던 막간을 다채롭게 꾸며주었으며, 단순한 경연대회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신한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참여한 댄서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의 면모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페스티벌의 대상 팀에게는 일반·대학부 단체 300만원, 중·고등부 단체 200만원, 초등부 단체 100만원, 솔로 100만원, K-POP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졌다. 금상은 스트릿댄스 일반·대학부 단체 100만원, 중·고등부 단체 50만원, 초등부 단체 50만원, 솔로 30만원, K-POP 30만원이었다. 은상 수상자에게는 스트릿댄스 일반·대학부 단체 50만원, 중·고등부 단체 30만원, 초등부 단체 30만원, 솔로 20만원, K-POP 20만원이 각각 주어지며 각 부분별 5개 팀에게 장려상이 수여되었다. 수상자 팀에게는 신한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출연료가 지급되는 공연 초청을 받는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심사 결과

K-POP부 : 장려상에 ASK CREW(에스크 크루), DG Dancers(디지 댄서스), 웁스 키즈, 변지영, 이슬번. 은상에 오소리. 금상에 리틀지댄스. 대상에 틴즈와일드.

솔로부 : 장려상에 최가영, 조에, SANDAG-OCHIR(상딱), 장요한, 김수연. 은상에 장요한. 금상에 김진용. 대상에 백민주.

초등부 : 장려상에 Winsome Dance(윈섬 댄스), Little WOOPS!(리틀 웁스), 드림키즈, ASK CREW(에스크 크루), X-Pert(엑스-퍼트). 은상에 D2 키즈. 금상에 J&L. 대상에 루키.

중등/고등부 : 장려상에 매드포스, G.D.T, D2, WOOPS(웁스), YNOT(와이낫). 은상에 OVERLIZE(오버라이즈). 금상에 원드스테퍼즈. 대상에 TOGETHER LOCKERS(투게더 락커즈).

일반/대학부 : 장려상에 UNKNOWFAMILLY(언노우패밀리), Robotronic Harmonix(로보트로닉 하모닉스), Jr.Primez(주니어 프라임즈), NEWTHRON(뉴트론), HOLY BANG(홀리 뱅). 은상에 KAMANY(카마니). 금상에 GLOLYLIGHTS(글로리 라이츠). 대상에 독특 크루.

5개 부문 총 100여팀 참가... 일반부 대상에 '독특크루'

신한대만의 색깔로 물들다.

2018 신한류 갈라쇼

이번 부제로 선정된'START-Sola Fide(믿음)'은
빛나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Star'와 하나의 예술을 표현하는
'ART'의 결합, 그리고 간절한 생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칭한다.

이승은 기자

지난 11월 23일. 제2회 신한류 갈라쇼가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의 주최로 벧엘관에서 개최되었다. 교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갈라쇼에서는 디자인예술대학 및 뷰티헬스, 교양교육원의 재학생들이 참가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였다.

갈라(gala)'라는 말은 이탈리아 전통 축제의 복장 'gala'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축제', '잔치', '향연', '흥겨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은 협력, 합장의 의미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의 특징 중 하나이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더욱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대학교육도 융합과 종합화를 추구하는 변화의 길을 가고 있다. 4차 산업시대에는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고 예술과 공학이 융합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식도 종합적일 수 밖에 없다.

마케팅을 할 때에도 콜라보레이션이 빠질 수 없는데, 각기 다른 분야에서 둘 이상의 브랜드가 손잡고 새로운 브랜드나 소비자를 공략하는 기법으로 많이 쓰인다. 이번 신한대학교 갈라쇼에서도 패션계에서 '디자이너 간의 공동작업' 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각기 다른 학과에서 협업하며 다양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이번 갈라쇼는 내년에 신설되는 태권도학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생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융합과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화려한 기술과 다양한 퍼포먼스로 태권도인은 물론 일반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태권도 공연은 나날이 인기가 더해지고 있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태권도 공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대학교에 태권도와 공연 문화를 융합해 신(新)한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가 생겼다. 바로 태권도교육융합전공이다. 내년에 신설되는 태권도학과의 등장을 미리 예고하듯, 그들의 포부를 갈라쇼를 통해 보여주었다.

매년 색다른 도전을 보여주는 신한대학교 갈라쇼는 '콜라보레이션' 뿐만 아니라 '갈라쇼'의 성격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축하 공연 또는 기념 공연의 의미로 열리는 갈라쇼는 콘서트 형식으로 즐길 수도 있고, 관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도 마련했다.관객들은 공연자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몰입과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부제로 선정된 'START-Sola Fide(믿음)'은 빛나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Star'와 하나의 예술을 표현하는 'ART'의 결합, 그리고 간절한 생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지칭한다.

첫 무대로는 (여자)아이들의 LATATA로 갈라쇼의 막을 열었다. 그 다음으로는 뷰티헬스학과 헬스전공 학생들의 댄스 리믹스에 맞춰 GX 다이나믹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패션디자인과의 패션쇼, 뷰티헬스학과 헤어전공 학우들의 웨딩파티 헤어쇼와 뷰티헬스학과 메이크업전공과의 웨딩파티 메이크업 판타지 쇼가 차례대로 이어졌다.

한 차례 화려한 쇼들이 끝난 후,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학생들의 뮤지컬 레미제라블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레미제라블 공연이 끝난 후, 공연예술학과의 K-POP전공 학생들은 스트릿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후

공연예술학과, 디자인학부,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그리고 올해에 신설되는 태권도학과의 협력, 학생들의 유대감 형성

내년에 신설되는 태권도학과의 다이나믹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후 공연예술 K-POP전공 학생들의 '전사의 후예', '캔디'를 통해 아이돌 퍼포먼스 무대를 선보였다. 갈라쇼의 후반부에서는 공연예술학과 K-POP 학생들의 '붉은노을'이라는 노래와 함께 캠퍼스 차원에서 시도한 융·복합 잔치의 획기적인 결과을 자축하는 듯했다.

각 학과의 학생들은 문화적 콜라보레이션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면서 짜임새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고, 공연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던 학우들의 노력에 보답하듯이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그들의 퍼포먼스에 응답했다.

의정부캠퍼스 벧엘관 대강당에서 열린 갈라쇼는 신한류 패션위크, 신한류 스트릿댄스 콘테스트 등 신한대학교가 그동안 개척해온 신한류의 연장선상에서 열렸다. 또한 신한대학교는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후 또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갈라쇼를 통해 보여준 기술과 문화의 융합은 신한대학교가 한국 최고의 명문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IT융합공학부는 갈라쇼에 참여한 학과별 학생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또한,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과가 사진편집 및 브로셔 제작에 참여했다. 또한, 무대에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호서대학교 등의 모델학과 학생들이 공연을 지원하였다.

학술제를 통한 학문의 교류

신한대, 학술제를 통한 학문 교류의 장으로 발돋움하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체험부스와 전시부스는 재학생들로 하여금 타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학문 교류가 이루어지는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 역할을 하였다.

이송은 기자

신한대학교에서는 이틀 간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제는 각 학과의 특성이 드러난 체험부스, 전시부스는 물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동아리 부스와 공연까지 실시되어 많은 학생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말씀관 앞에서는 동아리부스가 운영되어 재학생들에게 중앙동아리를 홍보하고, 주요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대운동장 앞에서는 총학생회부스와 취창업부스, 방송국부스, 사회복지학과 부스가 운영되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학술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었다.

신한대학교 제1대 총학생회 'EDEN'에서는 24일과 25일, 개그우먼 박지선과 마술사 최현우를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으며 학술제 당일에는 재학생들을 위한 룰렛 추첨 프로그램 '와라와라'와 1일 1회 한정으로 솜사탕을 나눠주는 '이든이 든 솜사탕'을 실시하였다.

이번 학술제에 참가한 중앙동아리 아람과 SNS, 밀알, 예향인, 로타랙트, SBBC는 올해 그들이 한 활동을 소개하고, 동아리의 특성과 재학생들의 참여가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신한대학교 교육방송국 SEBS는 '너의 한마디'와 '방송랜드'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으며, 중앙도서관에서는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의 쌓여있던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은혜관 지하 2층 체육관에서 진행된 학과부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로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뷰티헬스전공에서는 '젤네일 시술'과 '아로마향수 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안경광학과에서는 안경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콘텍트 렌즈 무료 나눔, 취업상담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미디어언론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으로 상영회를 열었으며 방송/라디오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번 학술제에서 안경광학과 부스 운영에 참여한 3학년 장대한 학생은 "매년 학과의 특성에 맞춰 관련 회사와 제휴를 통해 렌즈를 협찬 받는다"며 "학생들에게 렌즈를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학술제 때 진행한 것이 부스 인기 비결이자 학과 홍보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학술제에 있어 "총학생회 주관으로 실내에서 진행된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 준비 과정 중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모든 부스가 한 공간에 밀집되어 있기에 학생들이 전체 부스를 둘러보기에 좋았고, 그로 인해 참여율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제에 참여한 공공행정학과 17학번 안상현 학생은 "모든 학과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부스를 운영하고, 공연을 기획한 것이 좋았다"고 밝혔다.

궂은 날씨로 인한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가 걱정되었던 26일에도 신한대학교는 학술제의 열기로 뜨거웠다. 체육관 무대에서 펼쳐진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의 공연, 상금이 걸린 노래 및 댄스대결은 학술제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디자인학부 김서룡 교수 패션쇼 성황리에 종료

"담대한 어깨선과 펄럭이는 코트 자락,
그리고 유려한 실루엣"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세계는,
이날 훤칠한 키와 옷매무새로 무장한
59명의 모델들을 통해 극적으로 그 자태를 뽐냈다.

한규현 기자

패션쇼 런웨이 사진들은 김서룡 교수의 인스타그램 계정인 @kimseoryong이나 그의 홈페이지인 kimseoryong.com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영상은 라이브 채널을 공유하는 네이버 V LIVE 홈페이지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특히 영상은 사진들만으로는 볼 수 없는 현장의 열기와 생생한 모델들의 워킹을 고화질로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니, 김서룡 교수의 작품세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반드시 한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단순히 글이나 사진으로 접하는 것 보다, 직접 확인할 때 패션은 더욱 빛나기 마련이다.

매미 울음소리가 왠지 녹슬었다고 생각될 때 비로소 가을은 온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흔히들 '가을을 탄다'. 그만큼 가을은 감상적이고 또한 감정적인 계절이며, 독서나 음악회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겨울이 점차 가을의 자리를 탐내고 있던 지난 11월 1일, 신한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재직중인 패션디자이너 김서룡 교수의 패션쇼[2019 S/S 패션쇼(kimseoryong 19SS Collection)]가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열렸다. 남성패션매거진인 "GQ"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대한 어깨선과 펄럭이는 코트 자락, 그리고 유려한 실루엣"으로 대표되는 그의 작품세계는, 이날 훤칠한 키와 옷매무새로 무장한 59명의 모델들을 통해 극적으로 그 자태를 뽐냈다. 김서룡 교수의 옷을 뛰어나게 소화한 모델들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음은 물론이다.

'수트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김서룡 교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번에도 성공적인 컬렉션을 마쳤다. 이번 패션쇼에서 그는 보는 이의 시각을 경쾌하게 자극하는 패턴과 컬러를 한껏 활용한 룩을 제안했다. 봄과 여름이라는 시즌 테마에 맞춘 소재감도 일품이었다. 멋스럽지만 여유 있어 보이는 실루엣이 보는 이들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걸을 때마다 찰랑거리는 듯이 느껴지는 가벼운 소재감은 우아한 느낌까지 들었다.

김서룡 교수는 자신의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장소로 테니스장을 택한 이유가 관객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의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였다고 밝혔다. 단순히 옷 그 자체만이 아니라 야외 패션쇼장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이 담고 싶은 메시지까지 한 번에 잡은 그 판단은, 패션쇼장을 대중이 흔히 '남성복'이라는 의류 분야에서 연상하지 못하는 톡톡 튀는 컬러의 옷들에 걸맞은 쇼 장소를 선택한 김서룡 교수만의 감각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자리로 만들기도 했다.

이날 패션쇼를 관람한 관객들은 너도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18 S/S 김서룡의 쇼는 봄과 여름의 에너지, 색감의 산뜻함이 넘쳐났고, 절제된 매력의 수트를 마치 아이처럼 밝게 변주해낸 김서룡의 여유가 느껴지는 컬렉션이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특히 디자인 분야를 전공으로 삼아 배우고 있다는 한 학생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봄과 여름에 어울리는 짧은 길이의 수트가 매력적이고 시원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며 "화려하지만 절제미가 있는 패턴 디자인이 선명한 색깔과 조화를 이루는 게 인상적이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옷과 맵시, 그리고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 찬 채 약 16분간 숨 막히게 진행된

세계로 뛰어든 신한인, 그들을 만나다

신한대학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시대는 발전하여 국경과 민족에 구애받지 않는 '세계화'시대의 문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각 기관과 대학들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신한대학교 국제교류팀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신한인'들이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우수대학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환학생 프로그램, 파견학생 프로그램,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자매결연 대학을 언어권역별로 확대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데 힘쓰는 중이다. 현재 신한대학교는 전 세계 18개국, 80여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원동력으로 쓰인다.

김민성 기자

"경험을 새로운 시도로 이해하고 가서 부딪히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러시아 이르쿠츠쿠 대학교 한 학기 어학 코스를 다녀온 최민영(글로벌통상경영학과)학생은 자신의 어학연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녀는 과거 러시아 여행을 통해 얻은 러시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취업과 졸업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가장 바쁜 시기인 4학년에 어학연수의 길을 택했다. 어학연수를 진행하면서 가장 처음 부딪혔던 난관은 부모님의 뜻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 산동이공대로 어학연수 3~4개월 프로그램을 다녀온 유한솔(글로벌통상경영학과)학생도 어학연수의 첫 난관은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흔히 '놀러가는 것'으로 오해받아 이를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웠으나, 대학생으로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다른 여건에 여겨져 굴하지 않고 어학연수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님의 뜻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마지막 4학년 때에, 이 두 학생은 '새로운 도전의 길'을 택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처를 통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겪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가져왔다.

최민영 학생 (러시아 이르쿠츠쿠 대학교 한 학기 어학 코스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4학년)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을 간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나라라고 느껴서 저도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러시아는 추운 나라이고, 스킨헤드들이 있는 곳이라는 부모님의 선입견을 뒤로하고 마지막 학년에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 생각해서 어학연수를 결정했어요. 영어권 학교들은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의 수업을 따라가는데 사전적인 어학 지식이 필수적인가요?

"저는 알파벳도 모르는 채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나름 성공적으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자신합니다. 그곳에서는 그룹 또는 1:1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그룹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전 지식이 없는 관계로 그룹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1:1 전담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이후부터 수월하게 어학을 갈고 닦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5번, 하루에 세 시간씩 진행되고, 선생님께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게 최대한 쉬운 단어로 설명해주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번역기를 사용해 학습을 도와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How are you?'와 같은 기본 인사들을 배울 때, 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수업 방식이어서 기본적이지만 여러 가지 실용적인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새로운 '어학'을 공부하러 가는 해위이기 때문에 사전 어학지식에 너무 얽메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수업 외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에는 개인적인 시간들을 가졌는데, 학교 투어라든지 기숙사 친구들과 요리를 해서 밥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학교 안에서 한·러 언어교환 프로그램(한국어과 학생들과 언어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러시아와 한국 학생뿐 아니라 유럽에서 온 학생들도 많아서 다문화적인 경험 또한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이르쿠츠크에서는 한국 영사관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 곳에서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라고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제가 갔을 때가 월드컵 시즌이라 다 같이 모여 월드컵 방송을 보기도 하고, 총영사관님과 함께 대화하며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주로 유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기억에 남네요."

힘들거나 아쉬운 점은?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르쿠츠크 대학교에 갔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도 다민족 국가라 인종차별이라고 할 건 없었지만, 일단 말이 통하지 않는 점이 좀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쉬운 단어 정도는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만 6개월을 지내고서야 귀가 트였는데, 돌아갈 시간이 되니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만 더 했다면 훨씬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한 어학연수 생활이지만, 이러한 아쉬움으로 언어를 배울 때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학연수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도 많이 되겠지만, 가서 직접 부딪히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제 경우만 해도 하루 전까지 갈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국 어학연수의 길에 올랐고, 만족하며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많은 것을 얻어왔다고 자신합니다. 어학연수를 통한 '경험'을 '새로운 시도'로 이해한다면 편합니다. 다른 친구(학생)들도 현실적인 제약에 스스로를 가두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이 있다면 일단 부딪혀 보라 말해주고 싶습니다."

(중국 산동이공대학교 3~4개월 과정 - 글로벌통상경영학과 4학년)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원래 대학교 신입생 시절부터 어학연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러 가는 것처럼 보였는지 부모님께서 쉽게 허락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학연수에 대한 매력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 한 번 그 나라에 가서 직접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고 접한다는 장점에 이끌렸습니다. 신입생시절부터 4년 간의 긴 설득 끝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마지막 문턱인 4학년이 되어서야 어학연수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수업을 따라가는데 사전적인 어학 지식이 필수적인가요?

"제 경우는 사전 어학 지식 없이 어학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됐지만, 그곳 대학교 어학당에서 참가자의 수준별로 a, b, c로 반이 나뉘어 수업을 진행했고 제 경우는 가장 낮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수준별로 반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전 지식의 정도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 당 정원은 20명 정도이고, 보통 8시~12시의 오전까지 듣기, 말하기, 쓰기, 종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어학 수업 외에도 태극권, 다도와 같은 중국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수업도 준비 되어있어서 추가로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목들의 경우, 어학지식 자체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수강하기 한 층 수월했습니다. 선택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저는 다 경험해보고 싶어서 모두 수강했는데, 재미있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수업 외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대부분의 수업이 오전에만 진행되고 주말까지 포함하니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많았습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친구들과 여행도 종종 하고, 학교 행사도 많이 참여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륙의 스케일'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중국의 행사'하면 큰 규모가 떠오르는데, 이에 맞게 학교 운동회 역시 엄청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진 퍼레이드의 규모도 눈여겨 볼만 했고, 행사장에 대한민국 국기가 크게 걸려있는 것을 보고 갑작스레 애국심이 솟아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사귄 중국인 친구의 집에서 같이 명절을 보내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학연수 이후의 생활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HSK(한어수평고시漢語水平考試) 4급을 땄고, 두 달 동안 조금 더 공부하여 5급까지 취득했습니다. 또 이후로도 중국인 친구들과도 자주 소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통해 넓어진 소식통으로 외부 동아리에 가입해서 중국 친구들과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효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한 마디

"현재 어학연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문화 체험과 같은 해당 국가의 다양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한국인 학생들이 적은 환경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인(외국인) 학생들도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공통된 대화 주제를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고 우려하기보다는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시절의 로망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꿈꾼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시가 끝난 이후에도 대부분은 현실에 치여 학점관리와 각종 스펙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어학연수의 제도나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뿐더러, 어학연수의 기회가 찾아와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한대학교 국제교류팀은 이처럼 어학연수에 대한 이상과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빛을 밝혀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생활의 마지막 무렵에서야 등대의 빛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택한 두 어학연수생처럼, 지금의 학생들이 두려움으로 방황하지 않고 해외문화에 대한 학구열을 발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한대학교 솔루션 [1010], [599]의 실천

중국 단기연수 프로그램

창조와 융합, 지구촌 교육의 중심대학
신한대학교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커리큘럼과 중국 세모성화의
노하우가 결합된 성공적 협업 프로그램

박현규 편집장

경기북부의 교육 허브로서 작년 첫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신한대학교는 최근 일반대학원 과정을 설립함으로서 평생학습중심대학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1010]과 [599]라는 솔루션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010]은 차후 10년 내 대한민국 10위권 안의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표어이다. 수도권의 입지와 1호선 망월사역 바로 앞에 정문이 위치한 교통상 이점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인재 배출을 통한다면 능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599]는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신한대학교의 포부를 담고 있는 표어이다. 이전부터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갖춤으로서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에게 심화된 교육을 제공해오던 신한대학교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단순히 20대 초반의 학생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연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신한대학교는 중국 스모싱후이원화 성도 유한공사 세모성화문화와 협약을 체결 후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모성화는 중국의 유명 모델 양성소로서, 단기연수는 모델학과 개설을 앞둔 신한대학교와 협업한 가운데 총 100명(유소년 60명 성인 40명)이 참석하였고, 신한대학교 은혜관과 에벤에셀관을 활용하여 K-POP 댄스, 보컬, 모델 워킹, 메이크업 강의 특성을 살려 교육을 진행하였다.

한 번에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적합한 인원만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제로 짧은 시간 내에 확실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도 특징이었다. 단순한 홍보목적이 아니라 실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는 기회를 가지는 한편, 신한대학교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커리큘럼과 세모성화의 노하우가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차후 더욱 다양한 교육생들이 신한대학교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길잡이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만큼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곳도 드물 것이다. 앞으로 신한대학교가 시대의 흐름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여 발전해 나갈지 기대 되는 부분이다.

학내 민주화를 위한 한 걸음

제2대 총학생회 미리보기

제2대 총학생회는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학생들과 함께 '학내 속으로' 뛰어 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송은 기자

뛰어들자 학내 속으로 !

대학생들의 낮은 학내 정치효능감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최근, 신한대학교는 제2대 총학생회장단 구성에 성공했다. 제1대 총학생회 '이든'의 부총학생회장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했던 미디어언론학과 15학번 정동희 학생이 정총학생회장 후보로, 동아리연합회 봉사분과장 출신 공공행정학과 17학번 김수빈 학생이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들봄' 선거운동본부가 50%의 득표율로 2019년을 이끌어갈 학생대표 선출에 성공한 것이다.

제2대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들봄'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뜻이 담겨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긴 이상화 시인의 시처럼, '들봄' 역시 신한대학교 개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2월 6일,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난 제2대 총학생회장단은 당선 직후를 회고하며 말문을 열었다. 기호 2번이었던 '그대와' 선거운동본부와 단 242표의 차이로 당선의 쾌거를 거머쥐었던 때를 회고하며 정동희 학생은 "'들봄'을 지지한 학우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학생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대와'를 지지한 학우 분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함께 가고 싶다"고 밝혔다.

제1대 총학생회의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정동희 학생은 제2대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정총학생회장 당선에 있어 "기쁜 한 편 마음이 좋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1대 정총학생회장이었던 현승환 학생을 언급하며 "내게 울타리이자 배울 것이 많은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홀로 서기를 시작할 차례라고 생각하니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1대 활동에 있어 총학생회 기틀을 다지느라 놓칠 수 밖에 없었던 아쉬운 점을 이야기했다. 그는 제2대 총학생회의 목표인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학생들과 함께 '학내 속으로' 뛰어 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다 !

동아리연합회 봉사분과장을 역임했던 김수빈 학생은 "당선 확정이 되었을 때, 새로운 신한대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정총학생회장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발의하고,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들봄'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 있어 '뛰어들자, 학내 속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다', '학내 민주화, 그 한 걸음이 되겠습니다'까지 총 세 개의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김수빈 학생은 '들봄'의 대표가 되는 슬로건인 '뛰어들자, 학내 속으로'라는 카피에 대해 "총학생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학우들과 수평적 위치에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슬로건을 지었다"며 학생들과 함께 하는 움직임이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다'라는 슬로건에 대해 "학생 개개인이 사회에 나가도 신한대학교라는 타이틀은 따라 붙는다"며 "따라서 신한대학교 학우들끼리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희 학생은 '학내 민주화 그 한걸음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에 대해 전국대학생네트워크를 언급했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의 학생대표들이 그들의 자성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킨 것과 같이 학생들의 자성을 통해 신한대학교 개혁을 뜻하는 '학내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들봄'의 최종 목표는 신한대학교를 학생의 학교, 학생에 의한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종합대학으로 나아가는 신한대학교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학교로 만들어 장차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한국인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당찬 포부이다.

한편, 신한대학교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제1대 단과대학 학생회 구성에 성공하였다. 단과대학의 특성을 살려 체계적으로 움직일 단과대학 학생회와 학생복지를 실현할 제2대 총학생회 '들봄'의 행보가 기대된다.

학내 민주화 그 한 걸음이 되겠습니다 !

특집 인터뷰: 신한대학교의 얼굴들을 만나다

신한대의 희망, 학생들에게서 그 답을 찾다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고 값을 매기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저 수치화된 결과에 불과하다.
국가의 수준을 국민들로부터 알 수 있듯이, 학교의 수준은 학생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국가의 얼굴이 국민인 것처럼 학교의 얼굴은 학생이다.
학교를 알려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들의 품행과 행적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신한대학교의 대표적인 얼굴 격인 자랑스러운 다섯 학생을 만나봤다.

신대현 기자

‘뷰티(Beauty)’한 꿈을 향해, 뷰티헬스전공 허진·나혜민 학생

“학교수업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는 게 진로를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리관리 부문에서 그랑프리상을 수상한 허진 학생(3학년)은 진지하게 진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0월 25일 바이오생태보건대학의 뷰티헬스전공 학생 11명이 월드뷰티엑스포 및 미용경진대회에서 분야별로 참가해 전원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서울렛츠런 파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 중국, 베트남, 싱가폴, 대만 등 1,0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한 페스티벌이었다. 이 페스티벌을 통해 최고의 글로벌 뷰티 아티스트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고, 한국 뷰티산업 교류 및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며, 다른 국가의 뷰티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대회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고, 두 분야 모두에서 대상을 거머쥔 허진 학생과 나혜민 학생을 만났다.

과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고 지원하게 됐다는 나혜민 학생(1학년)은 “중간고사 기간과 학술제 기간, 알바가 겹쳐서 사실 연습과 대회참가에 조금 무리가 있어 힘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리한 일정에도 “시간조율을 통해 짜투리 시간을 만들고 집에서 동생들을 상대로 꾸준히 연습했다”고 말해 얼마나 대회를 열정적으로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다.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나혜민 학생은 네일케어와 속눈썹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 모두에게 지도교수의 조언과 피드백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허진 학생은 친구와 상의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데에 있어 한계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녀는 “교수님께서 외부강사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처음부터 제대로 연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도교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된 셈이었다. 지도교수들 역시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었다.

특히 이 두 사람의 목표를 눈여겨 볼만 하다. 허진 학생은 이번 대회가 첫 대회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다. 첫 대회에 출전하면서 그녀는 “아직 뷰티 쪽에서 부족한 사람이란 걸 느꼈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한편 “다는 못하지만 제일 관심사인 메이크업 국가자격증과 피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는 말에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허진 학생은 방학 중 목표가 “피부 관리 실습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실무 위주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혜민 학생의 최종목표는 강사나 교수가 되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출전경험과 수상경력을 많이 쌓아온 그녀는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상을 받아오면 부모님이 더 좋아하신다”며 “여러 대회를 나가며 커리어와 경력을 쌓고, 미래에는 교육 쪽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혜민 학생의 겨울방학 목표는 현재 취득한 네일 자격증에서 끝나지 않고 피부 관련 자격증도 함께 따는 것이다. 또한 그녀는 “내년 2월에 있는 ‘오딧세이 글로벌네일컵’이라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계 21개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큰 대회인 만큼 이 대회를 위해 방학부터 연습할 계획”이라고 당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수현, 최에스더 지도교수는 “학업시간이나 휴일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많은 열정으로 대회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좋은 결과가 나와 보람차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K팝에 이어 K뷰티가 한류를 이끄는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리고 헤어디자이너, 메이크업아티스트, 네일아티스트 등을 포함한 뷰티디자이너는 올해 고등학생이 4번째, 중학생이 6번째로 선호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점차 뷰티산업이 강세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 두 학생이 한국 뷰티를 이끌어갈 모습을 기대해본다.

‘고민’보다 ‘Go’,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정현희 학생

“저는 다른 친구들이 고민할 때 지원하고, 상담하고, 시작했습니다. 몰라도 도전하고 지원하세요. 못하는 건 없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정현희 학생(3학년)이 ‘도전을 망설이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현희 학생이 미군부대 인턴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된 계기는 의외로 단순했다. 그녀는 “그저 재밌을 것 같았다”고 말하며 “교환학생 관련 정보를 보고 국제어학센터에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교환학생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힌 이후 정현희 학생의 준비는 망설임이 없었다. 해외대학 측의 입학신청서를 작성한 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주어진 어학성적을 통과하고 여러 준비과정을 거쳤다. 합격 후에는 현지에서 적응하기 위해 그녀는 “전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다른 학생과의 연락을 통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고, 재학 중인 다른 한인 학생들의 인터넷블로그들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교환학생이 마냥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다. 정현희 학생은 “한국음식을 못 먹는 게 힘들었다”고 말하며 멋쩍게 웃었다. 또한 그녀는 “현지 학생들과 팀플과제를 하면서 의사소통이 잘 안될 때 되게 부끄럽고 힘들었던 것 같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위스콘신대학교 교환학생만이 아닌 미군부대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지원했다. 이런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환경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정현희 학생만의 방법이 있었다. 바로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거나 스스로 답을 찾고, 실수 없게 행동하는 것이다.

위의 두 활동을 하면서 정현희 학생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두려움이 없어졌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보고, 직접 해결하고, 활동하며 두렵지만 도전하고 극복한 경험이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현재는 큰 계획 없이 부족한 학점을 채우며 열심히 학교생활 중이라는 그녀는 두 활동을 통해서 무엇보다 “언어실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현희 학생의 말에 따르면 그녀도 처음에 미군부대에서 ‘YES’만 할 줄 아는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 일하면서 영어실력이 늘었고 나중에

는 미군 상사가 자신을 인터뷰 리포터로 데려가고, 업무를 맡기는 등 언어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많이 칭찬해줬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현희 학생은 "뿌듯했고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현희 학생은 "인턴십 활동을 하면 미국의 업무문화를 알 수 있고, 언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미리 사회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고민'보다 'GO'할 정현희 학생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조리'국가대표, 식품조리과학부 송우빈·함명신 학생

"다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흉터가 없으면 요리한다고 말할 수 없죠. 매일 다치고, 데이고. 근데 다쳐야 다음에 안 다쳐요. 그게 다 경험이니까요."

식품조리과학부 외식조리전공 함명신 학생(2학년)의 손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그 상처들을 통해 그동안 그녀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함명신 학생의 원래 전공은 운동 쪽이었다. 요리는 취미였는데, 아예 전공을 요리로 바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리를 공부했다. 그녀가 조리를 전공하게 된 데에는 조리업계에 몸담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함명신 학생은 "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것을 보고 요리가 익숙해져서 그 때부터 취미가 요리였다"고 말하며 "그래서 요리를 배운 처음 배운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고 말했다.

함명신 학생은 고등학생·대학생 조리국가대표를 지내며 '2018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금상을 수상한 실력자이다. 그런 그녀도 처음부터 대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함명신 학생은 처음 대회에 나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선배 대신 대타로 나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렇게 처음 나갔는데 잘 돼서 그 뒤에도 계속 나가야겠다 생각했고 저절로 재미가 붙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조리국가대표의 경우 한국조리협회에서 매년 선출공지를 내면 참가신청을 받고 처음 보는 9명의 사람들끼리 한 팀이 되어 전시와 라이브 대회를 나간다. 전시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전시장에 진열해 놓고 평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라이브 대회는 대회장 안에서 기술을 즉석에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함명신 학생은 "대회가 끝난 뒤에는 팀이 해체되는데, 서로 마음이 맞으면 다른 대회를 나갈 때 같이 준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당연히 힘이 들고 부담도 많이 됐다.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데, 함명신 학생은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의 3코스로 출전했다. 레시피를 처음부터 짜서 만들어보고 서로 평가한다. 그래서 1시간 30분을 보여주기 위해 두 달 동안 시험공부도 못하고 집에도 못가는 날을 반복했다고 한다. 그래도 그녀는 "나중에 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추억이었다"며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아 그땐 그랬지'하고 회상한다"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국가대표를 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았고, 배우는 것도 많았다고 한다. 함명신 학생에게 있어 대회 준비도 힘든 것이었지만 막내노릇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이었다. 그녀는 "나이가 어린 막내였기 때문에 허드렛일을 하고, 요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게 많아 힘들었다"고 말하며 한편으론 "사회생활을 그 때 많이 배웠다"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특히 함명신 학생은 욕심이 많은 학생이다. 요리사면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한식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도 조금씩은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다 배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디저트와 설탕공예를 배우고 있다는 함명신 학생은 "잘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만 파지 않고 이것저것 하면서 지식을 쌓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함명신 학생의 꿈은 교직에 서는 것이다. 영어를 배워 외국에 나가고, 한희학, 교육학, 심리학까지 모든 분야를 요리와 관련지어 공부하는 것이 목표이다.

식품조리과학부 송우빈 학생(1학년) 역시 같은 '2018 코리아 월드푸드 챔피언십'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2018 월드푸드 콘테스트'에서 설탕공예 제과제빵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한 제과제빵계의 떠오르는 샛별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제과제빵을 배운 우빈 학생은 "지금은 요리보다 화과자나 초콜릿 같은 공예를 배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송우빈 학생 역시 요리를 배우면서 대회가 궁금해져 나갔다가 재미를 붙인 경우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전시 대회만 나갔다는 그는 "동아리를 통해 라이브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며 "팀원끼리 생각이 잘 맞았지만 다들 첫 라이브 대회였기 때문에 명신 누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동아리의 이름은 '땅듀'로 "기념일에 맞는 제품을 실습하고 만들어서 부원들끼리 나눠가지거나, 봉사활동에서는 빵을 만들어 나눠준다"고 동아리를 소개했다.

이어 송우빈 학생은 라이브 대회에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를 풀어놓았다. 그는 "대회장에 가서 쓰려고 쳐놓은 얼그레이 크림을 실습실에 놓고 그냥 왔었다"며 "회장에 일찍 도착해 주변에 있던 카페에서 생크림과 얼그레이 티백을 빌려 다시 쳤다"고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털어놓았다.

송우빈 학생도 명신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직에 서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카페에서 일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빈 학생은 "카페에서 커피에 대해 많이 배우고, 제과제빵에 관련된 세밀하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배움은 즐거운 것이었다.

두 학생의 공통점은 배움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있다는 것이었다. 함명신 학생에게 있어 배움은 '간절해야 하는 것'이었다. 명신 학생은 대학에 와서 수업만 듣고 학교생활만 잘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본인이 간절하게 더 좋은 걸 찾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식품조리과학부에 입학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문적인 것을 떠나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다 생각하고 학교에 입학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역시 선배다운 모습을 보였다.

송우빈 학생에게 배움이란 '즐거운 것'이었다. 그는 같은 질문에 "학업이나 동아리도 다 좋지만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즐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학생활"이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쾌활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지금까지 만나본 다섯 명의 학생 모두 각자가 추구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 꾸준히 달려왔고, 이들의 배움과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신한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미래 각자의 분야를 대표하는 얼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들이 나아갈 찬란하고 아름다운 길을 응원한다.

특집 인터뷰: 한왕기 평창 군수

올림픽의 도시 평창, 그 속의 '신한인'을 만나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가치를 걸고 한왕기 군수는 지난 올림픽의 기운을 원동력 삼아 평창을 더욱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변화의 기운을 이어받아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된 한왕기 군수처럼 지금의 재학생들도 그러한 변화의 기운을 이어받아 '변화의 중심에 서는 신한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민성 기자

2018년 2월 9일, 평창의 하늘에는 화려한 오륜기가 펼쳐졌다. 전 세계 93개국, 2,925명이 참가한 이번 동계 올림픽의 개최지는 바로 대한민국 평창이었다. 이례적인 규모의 개막식으로 시작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끈 평창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성황리에 끝마쳐졌다. 이후 평창군은 올림픽 사후 처리 문제와 이후의 도시 마케팅 전략을 이끌 지도자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왕기 전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을 선택했다. 한왕기 군수는 1978년 신한대학교(당시 신흥보건전문대학교)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한 '신한인'이다. 한 군수는 지난 6월 선거에서 50.04%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이전 군수였던 타 후보를 재치고 당당히 군수 직을 차지했다. 신한대학교 보건계열 학과를 졸업해, 평창이라는 이슈의 도시 군수가 된 한왕기 군수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Q. 신흥대학 졸업 이후 어떻게 군수직까지 오르게 되셨나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사회생활을 잠깐하고, 28살인 1986년 평창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보건의료원과 군청 각 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비서실장, 보건사업과장, 경제체육과장, 관내 면장을 거쳐 평창군보건의료원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쳤고, 그 뒤에는 아시다시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민선7기 평창군수로 당선 되었습니다.

새마을업무, 환경업무, 경제체육업무, 군수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비서실업무에 기초행정구역의 장으로서 민원현장 최일선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면장 재직기간만 10년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밑바닥 민심부터 체득했습니다. 대학생활과 군복무시절을 제외하면 줄곧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오직 평창의 발전을 바라고 고민했던 그 경험이 저를 군수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Q. 전공과 크게 관련 없는 분야로 보이는데,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서 도움이 되셨나요?

"'공무원'하면 동사무소 민원창구나 일반사무직의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들 연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공직의 분야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는 보건직렬로 공무원에 임용되었습니다. 전공과 전혀 무관하지 않지요. 오히려 보건, 위생업무를 볼 때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일반병원에서 전공을 살려 근무하다가 공직에 도전했고, 조직 안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익히고 부딪치면서 또 다른 길을 가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공직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전공과는 다른 분야에서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렸듯, 전공에서 배운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전공'을 했다는 것이 꼭 '기술적'인 것만 뜻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공 공부를 통해 배경지식과 전공별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고, 그 위에 기본 소양과 사회적 관계 형성이 쌓이면 전문성으로 표출됩니다. 그러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갖춰진 '마인드'가 지금의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요즘에는 어떤 직업이든 기획력과 실행력이 요구됩니다. 지금 나의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대학에서 배운 교양과목도 '더 파고들어 공부해 볼 것을' 하는 후회가 생길 정도로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출신 초중고교는 모두 평창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이곳으로 진학하셨던 신한대학교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었나요?

"1978년 당시 대학은 신흥보건전문대학이었습니다. 보건계열이 특화되어 관련 직업인을 많이 배출했지요. 전문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큰 매력이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인 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학교에 대해 호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재학시절 이사장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라" 라고 누누이 강조하시던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혈기왕성한 한창 때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지금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학업적으로는 임상병리학을 공부해보니, '사람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재미를 느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신흥대학교에서 무리 없이 꽤 공부를 잘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도 바로 병원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고요.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신한대학교는 규모도 커졌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건학이념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것 같아 자랑스럽습니다."

Q. 학창시절과 졸업 이후 힘드셨을 때는 언제이며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셨나요?

"제가 재학 중일 당시에는 학교가 있는 경기도와 집이 있는 강원도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당연히 내려가기 어렵고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없었지요. 지금처럼 전화나 편지로 연락을 자주 할 형편도 못 되었고요. 더구나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절이니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는 나가서 뛰었습니다. 학교 위치 상 의정부 출신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과 축구 써클을 결성해 의정부 사회인 축구동호회와 경기도 치루고, 교내 테니스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동기들과 테니스를 배우기도 했지요. 운동을 꽤 좋아하기도 하지만 몸을 움직인 것이 힘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낯선 곳에서 어느 정도 적응도 되고, 워낙 긍정적인 성격이라 어려움을 어려운 것으로 못 느끼고 넘긴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로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군수로 취임한 후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치에도 부응해야 하고, 동계올림픽 사후관리와 유산조성, 행정조직 개편, 공약이행 전략, 교육계획,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조성, 내년도 예산 편성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도 해결하려면 마음이 급하지요.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의외로 제약도 많습니다.

지방자치는 종합행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최종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방의회의 동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속 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 재정자립도가 12%로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 정도만 자율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 피부로 느끼는 제약은 더 큽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 광역시·도까지 발로 뛰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다보니 벌써 취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는 영광과 막중함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동문가족과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Q. 학과 졸업 이후 공무원이라는 진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실천하셨는지, 또 공직분야나 다른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으로 계셨던 선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선친께서는 평생을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시고, 그것을 보람이자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공직 입문'이라는 제 진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갓 졸업한 후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전공과목과 병원에서의 직장 경험을 토대로 공직 입문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2년의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느끼는 격차가 꽤 큰 직업이 공직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직업적 안정성 등 장점만 보려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여러모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 그 직업이 나와 맞는지, 미래의 전망은 어떤지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을 알고,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겠지요. 다른 사람의 기준과 겉으로만 보이는 정보에 맞추지 마십시오. 어디나 힘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성취감도 느끼게 됩니다.

젊은 학생들은 '전공 관련'이라는 단어에 갇혀 한 길, 한 분야만 생각하며 진로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미처 여러분이 보지 못한 여러 개의 길이 있고, 그 길이 또 나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세계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Q. 불확실한 진로와 높은 취업 장벽에 직면한 후배들(신한대학교 재학생)에게 따뜻한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취업과 학점, 생활의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취업에 전부를 맞추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균형감을 갖추라는 겁니다.

사고에 대한 폭과 깊이를 키워주는 여행과 독서, 긴 인생을 함께 할 친구와 선후배,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운동 등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젊을수록 경험에 한계를 짓지 마시고, 마음껏 나가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희미했던 내 자신과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이를 먹고 주변을 보면 잘 쉴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일에 대한 집중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지금 돈이 없고 미래가 불안해도 대학 시절에 해 볼 수 있는 값진 경험을 내 것으로 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젊을수록 경험에 한계를 짓지 마시고, 마음껏 나가고 배우십시오.
그러면 희미했던 내 자신과 미래가 조금씩 그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Q. 평창 군수로서 갖고 계신 포부나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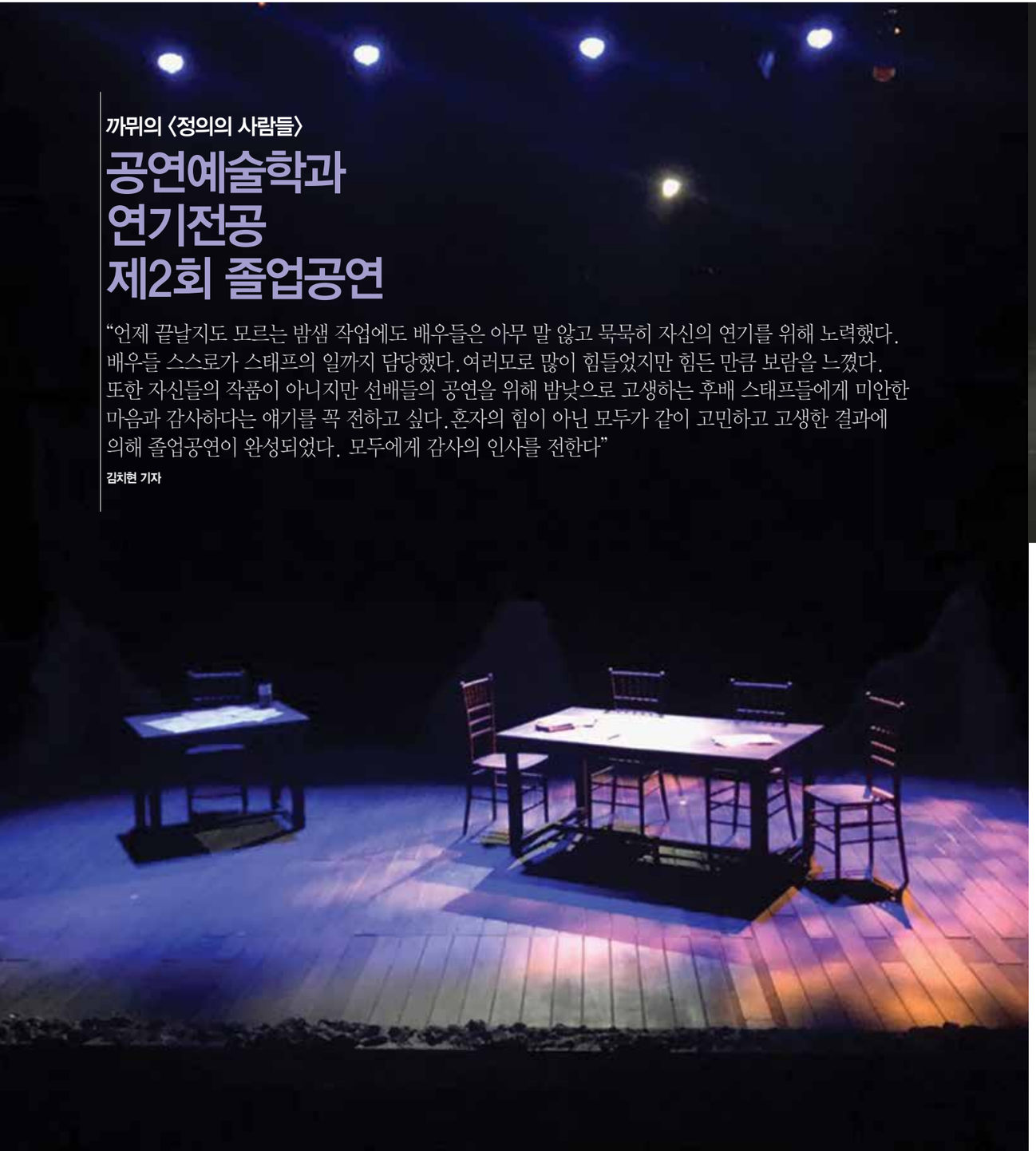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이제 2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도 7:3의 비율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체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요새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합니다만, 자치단체의 장으로 임기동안 공약 이행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평창군 같은 농촌지역도 젊은 일꾼들이 들어와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말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강원도를 찾는 방문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이 평창을 찾거나 지나고 있습니다. 방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물며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 평창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반드시 성과를 낼 계획입니다. 모교의 창의와 용기를 갖춘 젊은 인재들도 평창군을 많이 찾아주시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며, 평화의 기반을 만들어 낸 평창군을 늘 성원해 주십시오. 동문가족 여러분이 실력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인재가 되어, 교내에서, 사회에서 동량으로 빛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가 바뀌기 무섭게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됐고, 몇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제 한반도는 전 세계가 주시하던 '분쟁의 땅'에서 점차 평화의 땅으로 변해가는 흐름에 오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의 중심점에 있던 도시가 바로 평창이다. 그리고 오늘날 평창의 민심은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로 '신한인' 한왕기 군수를 선택하였다.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이라는 가치를 걸고 한왕기 군수는 지난 올림픽의 기운을 원동력 삼아 평창을 더욱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 변화의 기운을 이어받아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된 한왕기 군수처럼 지금의 재학생들도 그러한 변화의 기운을 이어받아 '변화의 중심에 서는 신한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까뮈의 〈정의의 사람들〉

공연예술학과 연기전공 제2회 졸업공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밤샘 작업에도 배우들은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연기를 위해 노력했다. 배우들 스스로가 스태프의 일까지 담당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보람을 느꼈다. 또한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지만 선배들의 공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후배 스태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 혼자의 힘이 아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고생한 결과에 의해 졸업공연이 완성되었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김치현 기자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학생들의 제2회 졸업공연 〈정의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업공연은 최해주 교수와 최교익 교수의 지도로 무대에 올려졌다. 최해주 교수는 "긴 시간에 노력을 통해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유의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작품의 특징이 연극의 다른 요소보다 배우들 연기의 힘으로 진행되는 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카뮈의 〈정의의 사람들〉을 졸업공연으로 선택한 이유를 말했다.

〈정의의 사람들〉은 1905년 러시아 황제의 숙부인 세르게이 대공을 암살한 모스크바 사회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정의와 인간애 사이에서 고뇌하고 행동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들은 면밀하게 세운 계획에 따라 세르게이 대공이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폭탄을 던져 살해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 대공의 어린 두 조카가 마차 안에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만 뒤로 물러나고 만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이 아무리 혁명이라고 해도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사가 지연되자 테러리스트들 사이에는 심각한 언쟁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겨난다. 내부에서는 내일의 러시아를 위해서라면 희생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이들과 인간주의를 앞세우는 이들로 나뉘어 격렬하게 논쟁하고 대립한다.

카뮈는 〈정의의 사람들〉에서 행복과 슬픔, 어둠과 빛 그리고 삶과 죽음과 같은 이원성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의 목표는 행복이란 무성한 것으로 인간의 상태는 하나의 필멸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는 병적이지 않고 삶과 행복의 위대한 진가를 반영하면서 이 분석을 행하고 있다. 작품에서 이 이원성은 패러독스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존재가 위대해지는 데 가치를 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언젠가 무의미해질 것을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것임을 알고 있다. 작품에서 카뮈는 우리가 어떻게 부조리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의 삶은 이것에 가치를 두는 데 의미를 가져야 한다.

두 차례의 참혹한 세계전쟁에 이어 소리 없는 전쟁, '냉전 시대'까지 거친 오늘날 세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계평화를 위한 각국 정상의 노력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숱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우리들의 삶은 늘 조금씩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와중에도 '인류애'를 잃지 않기 위한 노력까지 더 해야 한다. 연극 〈정의의 사람들〉에서도 꼭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스스로가 믿는 대의를 위해 선두에 선 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은 평범하고 아늑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한 인간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품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다. 도무지 이성과 타협하지 못할 만큼 잔혹해 보이는 어떤 이도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경계선에 서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내비치는가 하면, 강인해 보이지만 연약한 내면을 숨기지 못하는 있다. 아무리 서슬 퍼런 시대에도 최소한의 낭만과 이상을 추구하는 이도 꼭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다. 연극 〈정의의 사람들〉은 이처럼 5명 남짓한 테러리스트가 각자의 신념들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되묻고 있다.

〈정의의 사람들〉의 주제는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정의라 믿고 살아간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의 감정 표현이 매우 중요한 연극이다. 극이 진행되면서 변화되고, 고조되는 감정들에 맞추어 조명팀은 빛의 변화를 주고자 했다. 조명디자인을 담당한 공연예술학과 윤미단 학생은 "내가 생각하는 조명의 역할은 연극의 든든한 조력자이며, 주가 되는 것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밝기의 미묘한 변화들, 컬러의 조합을 중심적으로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조명은 대표적으로 엠버, 블루, 퍼플 그리고 화이트를 사용하여 테러 직전의 무거운 분위기나 차가운 새벽 밤중의 느낌을 냈다. 또 감정들이 고조되는 부분에는 밝기의 조절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공간을 조명으로 구분해야 했기 때문에 연극에서는 1, 2, 3막과 4막, 5막 3개의 공간이 나타난다. 혁명단원들의 아지트, 푸카체프 탑 속의 감옥 그리고 또 다른 아지트 특히 4막인 감옥은 철창 느낌의 고보를 바탕으로 깔아 감옥의 이미지를 구현하자고 했다.

연극의 전체적인 분장을 담당한 공연예술학과 조수빈 학생은 "그 시대를 구현하는 캐릭터기 때문에 분장디자인을 할 때 당시 러시아 혁명과 혁명당의 시대적 배경 조사를 중점으로 두었다."라고 말했다. 이 시대는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시대와 유사하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 혁명당과 대한민국 독립군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했다. 또 같은 뜻으로 모인 당원들이지만 캐릭터 고유의 특색을 살려 각자의 색깔이 보일 수 있도록 힘썼다.

연극에서 소품은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매개체다. 또 연기하는 배우들에게 생생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감정이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소품을 담당한 공연예술학과 김민정 학생은 "소품을 사용함으로써 배우들에게 진정한 배우다운 목표의식이 생기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번 소품 담당자인 나의 목표였다."라고 말했다.

〈정의의 사람들〉은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혁명가들의 고뇌와 심리 그리고 각자의 정의를 보여주는 극이다. 또 연극에서는 작가 카뮈가 그 시절 스스로가 느꼈던 삶과 가치관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무거운 내용을 전부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장의 포스터로 작품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 기획디자인을 담당한 공연예술학과 김지영 학생은 "모든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 장의 포스터로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최해주 교수님과 총 연출을 맡은 정재석 선배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했다. 또 디자이너의 도움으로 기획디자인팀에서는 포스터와 프로그램북을 기획하고, 어떻게 해야 관객들이 포스터를 보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지 와 프로그램북을 보고 공연의 이해를 어떤 식으로 도울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기획팀의 진심과 노력은 관객들의 가슴에 닿았고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졸업공연의 총 연출을 담당한 공연예술학과 정재석 학생은 "이 작품을 입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두꺼운 옷을 입는 쌀쌀한 날씨가 되는 날까지 모든 배우들이 고뇌하고 노력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밤샘 작업에도 배우들이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연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뿌듯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 간 것 같다. 더군다나 배우들 스스로가 스태프의 일까지 담당하며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힘든 만큼 보람을 느껴했고 피곤한 내색을 전혀 하지 않고 연기에 임해서 연출을 하는데 마음이 편했다. 또한 자신들의 작품이 아니지만 선배들의 공연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후배 스태프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혼자의 힘이 아닌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고생한 결과에 의해 졸업공연이 완성되었다고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흐에게 보내는 최고의 헌정, 러빙 빈센트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화가를 추모하는 가장 예술적인 방식

2017년, 빈센트 반 고흐 열풍을 일으킨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 세계 각지에서 선발된 125명의 아티스트가 고흐의 화풍을 재연하여 직접 그린 65,000점의 작화는 세계 최초 유화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했다.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는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설 중 '고흐 타살설'을 채택하여 전개된다. 고흐 사후 1년,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빈센트의 편지를 전하기 위해 그가 살던 곳으로 찾아간 아르망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빈센트의 죽음에 의문을 품게 되고, 그의 삶을 추적하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노라면 러닝타임 내내 고흐의 작품이 오마주된다. 고흐의 작품 속 모든 인물들은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로 재탄생되었으며,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풍경들 역시 고흐의 풍경화를 옮겨왔다. 고흐의 일생과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애니메이션을 보았을 때, 마치 명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애니메이션의 흥행에 따라 지난 16일, 전시회가 열렸다.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러빙빈센트전'이 바로 그것이다. 러빙빈센트전은 애니메이션으로 다 풀지 못한 숨은 이야기와 생생한 제작과정을 담았다.

전시 소개를 보고나면 빈센트 연대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그의 삶을 몇 줄의 문장으로 읽고 나면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실제 유화작품들과 마주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프레임과 고흐의 작품은 전시회 관람 내내 오마주되며 그를 통해 고흐의 일생을 상상하게 된다.

'러빙빈센트전'의 특별한 두 가지 포인트는 고흐의 화풍을 재연한 125명의 화가 중 한 명과 만나보는 '화가의 시선'과 공개되지 않았던 고흐의 작품 두 점이 최초 공개되는 '스페셜존'에 있다.

'화가의 시선'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한 화가가 고흐의 독특한 화풍을 재연하여 유화를 그리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스페셜존'에서는 고흐의 '꽃이 있는 정물화'와 '수확하는 농부'라는 초창기 고흐가 그린 정물화 두 점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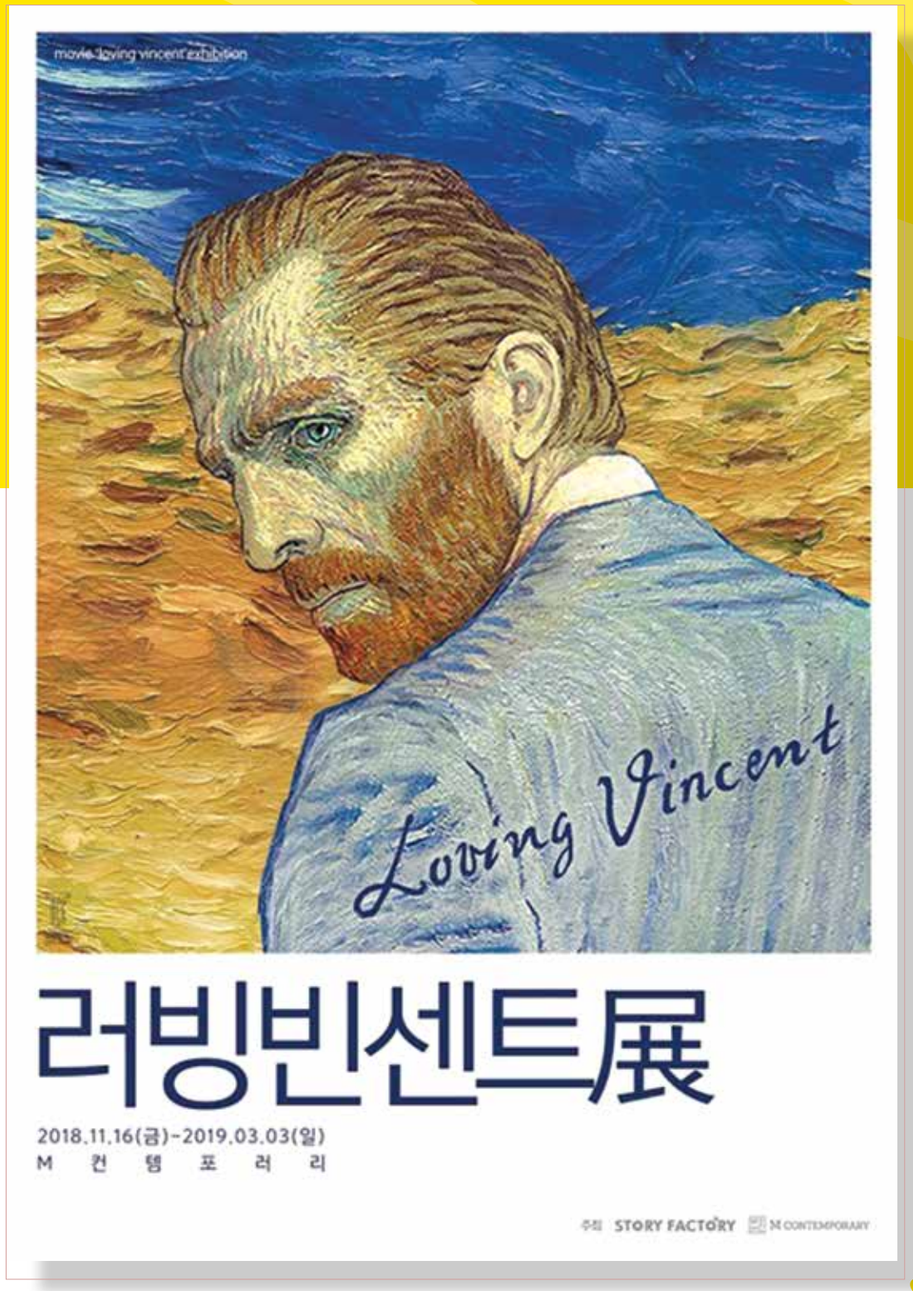
전시회의 막바지에 다다르면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작품에 집중하고, 그의 연대기를 꼼꼼히 읽으며 관람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지루함 대신 미소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마약쟁이, 정신병자로 취급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고흐는 아이러니하게도 따뜻한 작품을 그려냈다. 그는 론강을 사랑했고, 별을 사랑했고, 잠시 스쳐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 '러빙빈센트전'의 화가들이 그려낸 유화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고흐의 일생은 지독할 정도로 고독했으나 그가 그린 세상은 무엇보다도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러빙빈센트전'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화가의 삶을 그의 화풍으로 고스란히 재연한 유화를 선보이기에 잔잔한 울림을 준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을 회고하고, 전시회를 통해 그를 추모할 때 쯤 '러빙빈센트전'은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악수를 건네며, 당신의 러빙 빈센트.

〈이송은 기자〉



불꽃처럼

영화 〈영주〉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그 사람들이 누나를 받아줄까?"

처음에는 복수였다. 교통사고로 한 순간에 부모님을 잃은 영주와 영인 남매에게 있어 세상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영주는 학교를 그만 두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힘겹게 영인을 챙기지만 영인은 계속 어긋나기만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인이 친 사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지만 영주에게는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300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분노는 부모님을 사고로 죽인 가해자들에게로 향한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지만 가해자들도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였다. 트럭에 동승했던 향숙과 상문의 아들 승일은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깊은 잠만 자고 있었다. 깨어나지 않는 자식을 보며 그때의 그 고통 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문과 그 고통을 감내하며 승일을 보살피고 동시에 살뜰히 영주를 딸처럼 챙기는 향숙.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했지만 영주의 마음은 갈등하고 이내 타오르던 분노의 불꽃은 갈피를 못 잡고 위태롭게 꺼질 듯 흔들린다. 식어가는 불꽃처럼.

가해자 부부에게서 낯선 부모의 정을 느끼며 혼란스러워 하는 열아홉 영주와 그런 누나를 이해할 수 없는 영인은 서로 대립하고, 마침내 모든 진실을 밝혔을 때 이야기는 극에 달한다. 영주의 불꽃은 어디로 향하면 될지, 무얼 위해 타오르면 될지 모른다. 형체가 희미해져 위태롭게 흔들리던 영주의 불꽃은 이내 차갑게 꺼져버리고, 그 자리엔 연기만 피어오른다. 그 연기마저도 매캐한 냄새를 내뿜다가 갈피를 못 잡고 사방으로 흩어진다. 그리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소년소녀가장의 수는 외환위기 때인 1997년에 1만 6574명(가구주 9544명, 전체 가구원 7003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이들의 외로움과 삶의 무게마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은 또래 친구들이 공부에 열중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시간에 집안을 돌봐야 한다. 이런 생활 속에서 청소년 시기에 누려야 할 다양한 교육기회와 문화생활은 꿈꾸기조차 어렵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을 해주거나 연탄을 제공해주는 등 여러 곳에서 소년소녀가장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런 도움의 손길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에게 따뜻한 사람의 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처럼 마음을 다해 이들의 진로를 걱정해주고, 일상의 사소한 투정을 받아줄 사람도 필요하다. 힘든 세상 속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 곁에 있는 소년소녀가장과 좋은 인연을 맺어줄 사람들이 절실하다.

결국 영주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도, 복수도 아니었다. 냉혹한 사회는 영주와 영인에게 너무나 차가웠다. 그들이 바란 건 행복하고 풍족한 삶도 아니었다. 어쩌면 그들이 바란 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용기가 되어줄 수 있는 따뜻한 불꽃이 아니었을까.

〈신대현 기자〉

지렁이도 두 발로 직립 보행하는 날이 오고야 말리라!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 사랑과 살인편〉

〈젠틀맨스 가이드〉는 1909년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다. 낮은 신분으로 돈 한 푼도, 직장도 없이 살아가던 '몬티'는 어느 날 자신이 고귀한 다이스퀴스 가문의 여덟 번째 후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시벨라'에게 털어놓지만, 그에게는 "네가 후계자가 되려면 네 앞 8명이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 언젠간 지렁이도 두 발로 직립 보행하는 날이 올 거야." 라는 말만 돌아온다. 이 작품은 가문과 여자친구에게 무시당한 '몬티'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 여덟 명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다.

세련된 뮤지컬 코미디

이 작품의 장르는 코미디이다. 쫀쫀한 스토리는 관객들에게 커다란 웃음을 선사하며, 독특한 발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 전개는 관객들을 공연에 빠져들게 한다. 재치 넘치는 대사와 개성 뚜렷한 캐릭터들은 웃음에 목말랐던 관객들의 갈증을 제대로 해소해준다. 12인조 오케스트라가 펼쳐내는 화려한 음악은 청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빅토리아 풍 소품과 무대 장식, 화려한 의상, 앙상블의 안무로 시각적인 아름다움 또한 느낄 수 있다. 화려한 음악과 풍부한 볼거리는 공연의 질을 높이며 코미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는 요소가 되었다.

화려한 수상경력과 완벽한 캐스팅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어워즈 '최우수 뮤지컬' 그랜드 슬램 달성과 함께 2014 브로드웨이 뮤지컬 최다 수상작의 위용을 과시한 〈젠틀맨스 가이드〉는 토니 어워드 10개 부문 노미네이트, 2014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 2014 외부비평가상, 2014 드라마리그어워드, 2015 그래미어워드에서 최우수 뮤지컬, 최우수 극본, 연출 의상, 작사 등 총 17개의 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버전의 〈젠틀맨스 가이드〉는 극 중 캐릭터들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초특급 배우들을 캐스팅했다. '몬티 나바로' 역은 김동완, 유연석, 서경수 배우가 연기하며 1인 9역 '다이스퀴스' 역은 오만석, 한지상, 이규형 배우가, '시벨라' 역은 임소하(임혜영) 배우가, '피비' 역은 김아선 배우가 연기한다.

〈조희지 수습기자〉

당신의 언어가 가지는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해

이기주, 「언어의 온도」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總量)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多言)이 실언(失言)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언어는 섬세하다. 하나의 문장이라도 조사 하나에 그 뜻이 달라지는 것이 언어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타인과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은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은 우호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다. 관계의 감정은 대부분 상대방에게서 나오는 말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화살이 되어 가슴 한구석에 깊숙이 꽂힐 수도 있다.

〈언어의 온도〉에서 이기주 작가는 이러한 언어의 섬세함에 대해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단어의 어원과 유래, 그런 언어가 지닌 소중함과 절실함을 책에 담았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아픔을 이야기하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를 듣다가 느낀 생각, 화려한 꽃 축제에서 느낀 감정보다 지나가던 골목길 작은 들꽃에서 느낀 아름다운 감정들을 글로 풀어서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이기주 작가는 말한다. "말과 글에는 저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서로 다른 나름의 온도가 있다"라고. 정말로 그렇다. 온기 있는 언어는 세상살이에 지친 친구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는 듣는 사람에게 정서적 화상을 줄 수 있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도 하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한다.

같은 말이라도 말의 어조와 화자의 태도에 따라 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평이하게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심코 툭하고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마련이다. 말에 온도가 있다면, 아마 상대방이 자신이 내뱉는 말의 온도에 익숙해졌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일지도 모른다.

고슴도치가 자기 가시의 따가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이 내뱉는 말의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말의 온도는 화자보다 청자의 피부로 더 잘 느껴진다. 한 번쯤 자신이 내뱉는 말 한 마디가 어떤 온도를 지니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신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소중한 사람이 곁을 떠났다면, 한두 줄 문장 때문에 누군가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았다면 더더욱.

〈정윤지 수습기자〉

21C SHINHAN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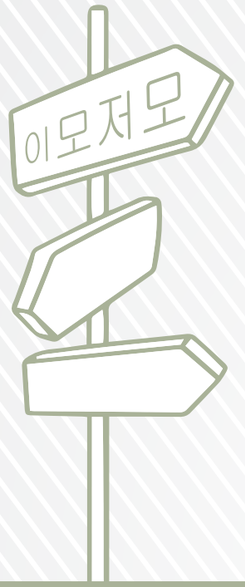
SUPER VERSITY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 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재학생 2018년도 '한국치위생학회 학생연구 포스터 경진대회'에서 6팀의 수상 쾌거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는 2018년도 한국치위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실시된 학생연구 포스터경진대회에서 총12팀이 참가하여 6개의 팀이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학과장 정성균)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보건통계학', '치위생연구방법론'을 개설해 학생들이 전공 관련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지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에도 학생들의 논문 9편이 한국 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희지 수습기자〉

서갑원 총장, 월드뷰티엑스포 및 미용경진대회 수상자 격려 자리 마련 조예은 학생 "세계인들과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 서갑원 총장 "뷰티헬스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걷어 진심으로 축하"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 바이오생태보건대학(학장 김영성)의 뷰티헬스전공 학생 11명이 10월 25일 월드뷰티엑스포 및 미용경진대회에서 분야별로 참가해 전원 수상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에 신한대 서갑원 총장은 11월 7일 제1캠퍼스 총장실에서 11명의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렛츠런 파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월드뷰티엑스포 및 미용경진대회 1,0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이 참가하는 페스티벌이다. 신한대학교 수상자로는 ▲다리관리(그랑프리) 허진 ▲아트웨딩(대상) 나미선 ▲실크팁(대상) 조혜민 ▲네일케어, 속눈썹(대상) 나혜민 ▲베이직(대상) 김소현 ▲림프드레니쥐(대상) 이지우 ▲호일워크(최우수상) 김윤지 ▲살롱테크닉(우수상) 조예은 ▲등관리(우수상) 이정수 ▲네일케어(우수상) 김린아 ▲복부관리(장려상) 김서현이다.

〈조희지 수습기자〉

신한대-베트남 반히엔 대학 MOU 체결 반히엔대 운영 한국학과생 신한대 유학 적극 추진 서갑원 총장 "전공분야학제 신한대와 비슷 교류 시너지효과 기대"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와 베트남 반히엔대학(Van Hien University)이 학생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맺었다. 서갑원 총장과 반히엔대 트란 반 하우 이사장 및 트란 반 티엔 총장은 10월 23일 의정부 캠퍼스 믿음관 세미나실에서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했다. 신한대학은 MOU에 따라 베트남 지역의 유학생을 어학연수 또는 편입생으로 유치하고 반히엔 대학은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교환학생과 학부생의 신한대학 유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1월 베트남 호치민 유학설명회를 찾아 신한대학교의 교육방침과 학제를 소개하고 반히엔 대학교에서 유학설명회 가진바 있다.

〈조희지 수습기자〉

2018학년도 가을학기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문화체험 외부체험학습을 통한 학습능률 제고와 학생과 교사 간의 원활한 소통 향상 기대

지난 2018년 11월 2~3일 신한대학교 국제어학센터에서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225명과 함께 한탄강 지질 공원활성화를 위한 연천군과의 MOU를 기반으로 경기관광공사, 한탄강지키기운동, 연천군청의 협력 지원으로 지질 및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8학년도 가을학기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문화체험은 신한대학교 2단계 중장기 발전계획인 신한류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문화체험은 외부 체험학습을 통한 한국어 활용 및 한국문화 이해도 향상과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연수는 연천군에서 진행됐으며 어학연수생 201명이 참여하였다.

〈조희지 수습기자〉

자동차 산업 전문 전시회 2018 오토위크 19일 개막
21일까지 킨텍스…300개 회사가 참가 1,200개 부스 운영
자동차 정비, 우수튜너, 튜닝카 경진대회, 취창업박람회 등
서갑원 총장 VIP초청 개막식 테이프 커팅…전시장 둘러 봐

자동차산업 전문전시회인 2018 오토위크가 서갑원 신한대 총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자동차기술, 튜닝 연구원 , 언론계 인사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10월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 동안의 행사에 들어갔다. 행사는 킨텍스 1~3홀과 옥외전시장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자동차 관련 300개 회사가 참가해 1,200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오토위크는 2006년 자동차 관련 산업 및 서비스 통합을 위해 첫 전시회를 가진 이후 지난 해에는 8만 여 명이 관람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부대행사로는 자동차정비 및 튜닝관련 세미나,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A/S산업 취업설명회, 튜닝 취창업박람회 등이 열린다.

<조희지 수습기자>

신한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MOU체결.
고 성능, 고 안전 자동차 전문 인력 양성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주관 현장 재직자 신기술 직무향상 교육
서갑원 총장, "고용창출,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 초석될 것"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전시회 '2018 오토위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사)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고성능. 고안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 협약서에는 서갑원 총장과 승현창 회장이 각각 서명했다. 서갑원 총장은 "이번 협약은 특성화 학과인 신한대 자동차공학과의 우수한 교수진의 R&D 개발 및 교육경험을 통해 자동차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직무향상과 고용창출 등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MOU를 계기로 자동차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내수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희지 수습기자>

멕시코 UANE 대학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서갑원)가 지난 1월 월 12멕시코 일 UANE대학과 학(學)-학(學)교류와 취업연수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서갑원 총장은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차 한-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미래협력 포럼에서 한국과 남미공동시장 간 문화협력 세션을 주재하고 멕시코로 이동하여 계약을 체결했다. 두 대학은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교수 및 학생 교류, 복수학위제, 산학협력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관리법인인 사람HC(SARAM Human Consulting Firm)와 고용노동부 용역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신한대 재학생의 인턴 및 취업연수 과정과 스페인어와 영어연수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한국어 강사도 파견하기로 했다. 신한대는 2014년 종합대학 출범 이후 중국 등 동북아, 베트남 등 동남아, 러시아 국가의 대학과 MOU를 맺는 북방전략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중남미 지역의 대학과 처음으로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이고, 신한대가 중심 역할을 하는 신한류를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윤지 수습기자 >

서갑원 신한대 총장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 방북

서갑원 신한대 총장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했다.

남측 인사 160명 가운데 포함된 서 총장은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정부, 정단, 민간단체와 함께 4일 오전 정부 수송기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했다. 10.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으로 10.4선언 공동행사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공동행사는 10.4선언이 추구했던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서갑원 총장은 "남·북한 화해가 진척됨에 따라 경기북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대학교는 2014년 개교와 동시에 한민족평화통일연구원과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을 설립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방면의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지 수습기자〉

사진 : 연합뉴스

기본역량진단평가 대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총 이틀 간 전체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워크숍이 의정부 캠퍼스 벧엘관과 은혜관에서 열렸다. 한마음 워크숍은 내년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우리 대학의 향후 추진계획 및 전략을 중심으로 기본역량진단평가와 관련된 외부인사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서갑원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본역량진단은 철저한 순위경쟁에 의해 등급이 결정되는 상대평가인 만큼 우리는 절대평가인 대학평가인증과는 또 다른 전략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서 총장은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밀려나 존폐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과 전략을 숙지해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정윤지 수습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강수철	교육총괄팀
강정원	유아교육과
고영아	국제어학과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권영길	교양학부
권영일	임상병리학과
권원기	공공행정학과
권태순	섬유소재공학과
김경회	유아교육과
김남용	공법행정학과
김남중	치기공학과
김미숙	간호학과
김미진	간호학과
김민정	입학사정팀
김병옥	신한대학교
김보혁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김봉건	입학사정팀
김상현	방사선학과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김순남	교양교육원
김순옥	간호학과
김승욱	공공행정학과
김영성	식품영양전공
김옥희	교양교육원
김용섭	교양교육원
김인섭	교무연구팀
김정호	공공행정학과
김정훈	전자공학전공
김지명	식품영양전공
김지영	사회과학대학교학팀
김창희	학생상담센터
김현숙	교무연구팀
김현우	교양교육원
김호성	방사선학과
노운녕	공공행정학과
류진아	사회복지학과
류현욱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박주원	유아교육과
박진우	대학본부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박현철	산업디자인전공
박호균	컴퓨터공학전공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방승환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배시애	교양교육원
배영금	국제어학과
변현진	산업디자인전공
변희진	산업디자인전공
서수연	뷰티헬스전공
서종원	임상병리학과
성금단	교양교육원
송운홍	경기북부개발연구원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안선정	외식조리전공
안이수	공공행정학과
오이균	공공행정학과
유병엽	경기북부개발연구원
유수평	국제어학과
유은경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유지오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이강석	시설지원팀
이광규	컴퓨터공학전공
이규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이기찬	교양교육원
이남전	대학본부
이대성	국제교류팀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명호	외식조리전공
이민선	간호학과
이선민	공간디자인전공
이승영	산학지원팀
이영애	교양교육원
이웅배	뷰티헬스전공
이정규	사회복지학과
이정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정훈	방사선학과
이주헌	이주헌

이찬주	전자공학전공
이현숙	공연예술전공
이현종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임기원	재무회계팀
임병우	산업디자인전공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임원선	사회복지학과
장용운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장인봉	공공행정학과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전영주	홍보팀
전현주	국제어학과
정성균	치위생학과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조규봉	임상병리학과
조명래	재무회계팀
조성심	사회복지학과
조성윤	시설지원팀
조우택	입학총괄팀
주영훈	공연예술전공
진가헌	안경광학전공
진선범	교육총괄팀
최경서	안경광학전공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승구	임상병리학과
최에스더	뷰티헬스전공
최지연	교수학습센터
최창영	국제어학과
최화식	임상병리학과
한상욱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한태희	다문화팀
형성우	평생학습중심대학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홍성수	공간디자인전공
홍수희	글로벌통상경영학과 학
홍승예	술정보팀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황보상원	공공행정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주)메가젠 임플란트
(주)사회평론
(주)솔데스크
(주)제이알커뮤니케이션
(주)한빛디앤에스
CU동두천 신한대캠퍼스
강기봉
경기도안경사회
고문사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트랙교수
김문성
김정욱
김준석
김진경
김진의
남궁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박광용
박성모
송내교회
송용호
수요예배
아이파파(I-PAPA)
아프리카안경원
어응수
에스앤이에너지(주)
오렌즈방학역점
이강태
이래곤
이충환
장윤태
정유찬
정한별
치기공학과 동문회
포널스출판사
한불에너지관리(주)
호가엔터테인먼트

자르는선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인적사항	필수	□동문 □재학생 □학부모 □법인(기업) □일반인(비동문)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 명 (상 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선택	연 락 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 장 명		부 서 명	
				직 위	
		E-mail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여러명일 경우 학과명 또는 부서명 기재요망
약정		총 액	금( )원 (₩)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총( )회 / 월( )원씩		
		기부금 용도	□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 지정발전기금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처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 무통장 입 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입금자명	□ 기부자명과 동일 □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 자동이체 (CMS) / 휴대폰결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모바일 홈페이지 (http://m.shinhan.ac.kr/) 하단 '발전기금' 메뉴 클릭		
		□ 교직원 급여이체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2~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9. 02/ 196호

편집후기

김치현 기자

이번 196호는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신한톡톡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완성하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는다.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 신문사 식구들이다. 지난 2년 동안 옆에서 힘든 내색 없이 내게 도움을 준 우리 기자들과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이끌어주시던 이선민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신대현 기자

이번 196호는 겨울날 한 잔의 따뜻한 커피 같은 것이다. 뜬금없지만 내 꿈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기준의 좋은 기사는 간단하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사,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슬픔을 공유하는 기사가 좋은 기사이다. 내 기사로 차가운 사회가 조금은 따뜻해지고 어떤 식으로든 현실에 변화가 생긴다면 좋은 기사를 넘어 성공한 기사라고 생각한다. 부디 내 손 끝에서 탄생한 좋은 기사가 차갑게 얼어붙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냈길.

김민성 기자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됐다. 작년 이맘때 나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작년의 여운이 아직 나를 지배하는지 많은 것에 무기력해지고 동시에 생각이 많아진다. 정말 정신없이 1년이 지나가버린 기분이다. 많은 것을 잃은 한 해이자, 많은 것을 얻은 한 해라고 느껴진다. 특히나 신문사에서 얻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가 신문사에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되지만, 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고, 내가 더욱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박현규 편집장

편집장으로서 만드는 마지막 신한 톡톡. 하루에 서너시간도 미처 자지 못할 정도로 바빴던 기간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신한톡톡히니 만큼 더욱 큰 애정을 느낀다. 비록 편집장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지만, 앞으로도 일반 기자로서 활동할 예정이니 만큼 독자 제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송은 기자

겨울의 찬 공기가 코 끝을 스칠 무렵, 한 번의 임기정지를 겪었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 그 이유였다. 3주 간의 임기정지 후에야 비로소 세 건의 기사 작성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 이번 신한톡톡 제작은 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었다. 부국장으로서, 언론학도로서 기사 작성은 내게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임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었다. 마감까지 남은 2주 안에 세 건의 기사를 작성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지만 결국 성공했다. 196호 제작은 내가 가진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매 신한톡톡 제작 때마다 그러했듯 197호 제작 때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

정윤지 수습기자

이번 호에 처음으로 단독으로 적은 기사가 실렸다. 6개월동안 수습기자 신분으로 두 번의 신한톡톡을 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다음 197월 호는 지금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

조희지 수습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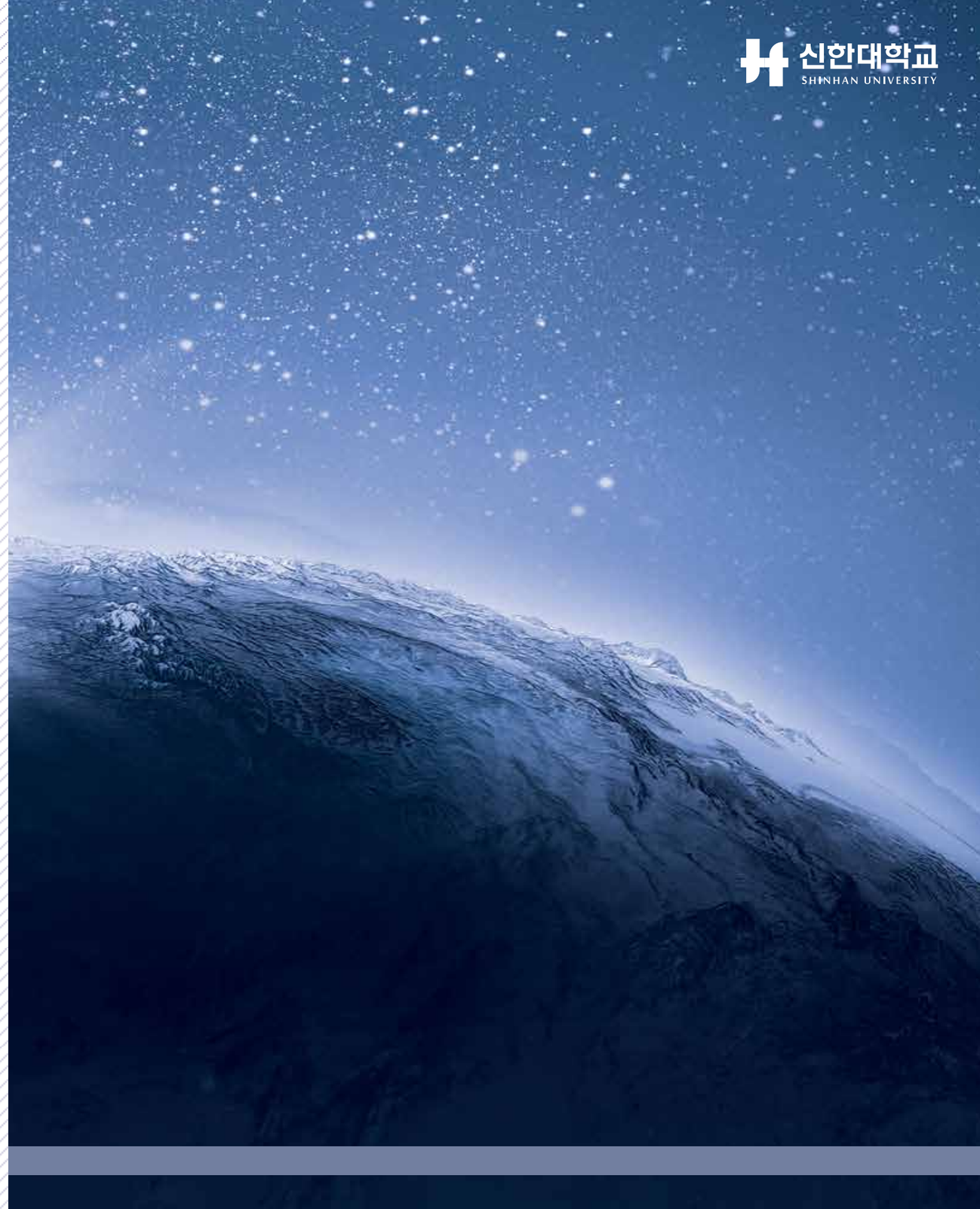
두 번째 편집후기를 이렇게 빨리 쓰게 될 줄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벌써 두 번의 편집후기를 쓰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최수민 기자

벌써 신한톡톡을 만든 지 2년이 지나간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긴장했고, 그다음은 실수하면 안 되기에 긴장했지만, 지금은 어느덧 익숙해진 상태이다. 나의 신문사에서 2년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이다. 시간이 지나, 함께 지내온 동료·선배들이 비록 신문사 소속이 아니게 될지라도 그들은 나의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사람들일 것이다. 비록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동료들이 나중에 어디에 가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뤄내길 응원한다.

한규헌 기자

벌써 신문사에서 1학년을 보냈다는 걸 생각하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빠른 만큼 그동안의 1년을 알차게 보냈는지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방학을 보내야겠다. 내년에도 즐거운 신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 래 를 위 한

신의한수

4년의 투자 40년의 가치 **신한대학교**

- **역세권** 지하철 도봉산역 3분, 망월사역 1분
- **숲세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그린캠퍼스
- **英세권** 미군 2사단 캠프 영어 인턴십 운영

신한대학교
SHINHAN UNIVERSITY